

한 국 일 보



▲아마추어 조각가 나이젤 빈스가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. 오른쪽은 그의 친구인 강대홍씨.

“韓·黑화합 상징물 세우자”

흑인 아마추어 조각가

흑인 아마추어 조각가가 한·흑화합을 상징하는 기념물을 LA에 건립하자 는 의견을 내놓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.

아마추어 조각가 나이젤 빈스(34)는 라타샤 할린즈양 사건과 4·29폭동으로 심화된 한·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「레이마트 공원」(크렌셔&스탁커)에 「라타샤 할린즈 프렌드십 메모리얼」이라고 명명된 기념물을 세우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.

그가 구상하고 있는 기념물은 총 36 피트 크기로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손에 올린 한인 여인상과 법을 상징하는 저울을 든 흑인여인상이 함께 손을 잡는 동상아래 태극기와 흑인을 상징하는 기를 세우게 된다.

이 동상 아래에는 한국과 흑인의 주요역사가 적힌 2개의 대리석이 자리잡

아 동상을 받치게 된다. 이 대리석 사이에는 미국의 헌법이나 민권법의 문구가 새겨진다. 동상 주위에는 라타샤 할린즈양의 초상화와 야간에도 이 기념물을 볼 수 있도록 헤드라이트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.

빈스는 「이 기념물은 한·흑문제 해소 뿐만아니라 LA지역의 관광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」이라며 「LA카운티 예술및 문화 관리국 관계자와 상의 를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」고 말했다.

빈스에 따르면 이 기념물 건립에 1백 50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빈스는 이 기념물 건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·흑커뮤니티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.

빈스는 이 기념물의 소형 모형을 이미 만들었다. 이 기념물 설립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은 (213)746-9263으로 연락하면 된다.

〈문태기 기자〉